MIRAL
밀알
2014. 03 + 04
Vol. 41

밀알

한 알의 밀알이 이웃들의 마음에 따스한 싹을 틔웁니다



밀알복지재단

MIRAL Welfare Foundation
2014. 03+04 Vol. 41



Cover story

장애인보호작업장인 밀알베이커리에서
근로자 설재은씨가 빵을 만들고 있다.

사진 박정인 사진작가(재능기부)

밀알복지재단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1993년 설립되어 43개 산하시설과 4개 지부를 통해 국내의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 복지서비스와 자립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해외 19개국에서 특수학교 운영, 빈곤아동 교육지원, 이동진료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전개하는 전문사회복지단체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이사장] 홍정길 **[상임대표]** 정형석 **[이사]** 김명희, 김종인, 김주영, 박상범, 손봉호, 송창국 **[명예이사]** 노상헌, 박완철, 이민우, 장형옥, 정현만, 정형철 **[감사]** 김재훈, 신명철, 임수택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완철 **위원** 구자영, 양문봉, 이유진, 이종면, 정태충, 정형석, 정형철 **[직업재활위원회] 위원장** 신명철 **위원** 김귀자, 김명환, 류제룡, 박정열, 손만석, 이민철, 정형석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 **위원** 강영실, 류미희, 박소영, 신민선, 이은주, 임종학, 정형석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정현만 **위원** 김혜경, 윤지준, 전명희, 정형석, 한정국 **[전문위원]** 김두현, 김미옥, 이천화, 전승만

밀알 2014. 03+04 Vol. 41

제호 밀알·Miral(통권 41호)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발행 및 편집인** 정형석 **주소** 135-884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4, 2층(수서동)
TEL 대표번호 02-3411-4664 **회원전용** 1600-0966 **FAX** 02-3411-4779 **디자인·인쇄** 리드릭
www.miral.org **www.twitter.com/miral1993** **http://miralorg.tistory.com** **www.facebook.com/miral4664**

CONTENTS









04 **인사말** 밀알아트센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환영합니다
06 **울림이 있는 그림** 등산가는 날
08 **밀알 포커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14 **사연이 담긴 이야기** 우리 예빈이가 변했어요.
18 **현장 이야기** 숨길 수 없는 빛의 이야기, 연길밀알학교
22 **나눔 세상** SK건설 사회공헌 이야기, 마음이 행동이 되기까지
24 **특별한 만남** 김성민 후원자의 함께 하고 싶은 일
26 **체험 이야기** 1.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 '방이역 일대'
2. 사회적 환경이 만드는 장애인은 없을까?
30 **법인사무국 소식**
31 **산하시설 소식**
34 **회원안내**
35 **회계보고** 2014년 1월 ~ 2월 밀알복지재단 결산보고

밀알아트센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환영합니다



한겨울을 지나 또다시 생명이 움트는 봄이 돌아왔습니다. 밀알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과 좋은 소식으로 봄 인사를 대신합니다.

우리재단은 지난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밀알학교 재산세부과처분 소송 공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관할구청은 밀알학교 별관인 밀알아트센터 일부공간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재산세 약 3억 4천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로 우리재단은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비윤리적인 기관으로 보도되어 투명한 밀알을 강조하였던 우리 재단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원래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기본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단지 수익용 재산인 경우에는 영업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왔습니다. 우리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밀알아트센터는 밀알학교 별관으로, 밀알학교는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입니다. 세금이 부과된 밀알아트센터는 다양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주간에는 학생들과 학부모와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실비를 받고 음악당 등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밀알아트센터 전체를 목적사업용 건물로 판단하였습니다. 음악당, 휴게실 등 일부시설에 대하여도 매출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이 1심이기 때문에 최종판결까지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재단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비영리 공익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갈 좋은 판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사립학교나 복지기관들이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되어 공익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재단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밀알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따뜻한 봄날과 함께 후원자님과 가정에 늘 복된 소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 3월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정 형 석

등산가는 날

나는 초록색

아빠는 파란색

옆집 아주머니는 노란색

우리 선생님은 보라색

색색의 옷을 입고 한 곳으로 가요.

무거운 책을 내려놓고

아빠의 손을 잡아요.

왼 발 오른 발

발걸음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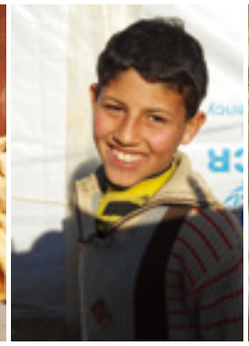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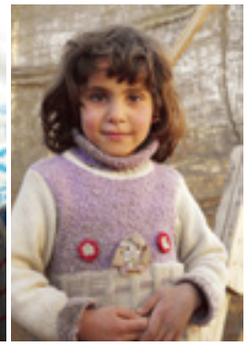
한 곳으로 가요.



그림 _ 자폐성 장애가 있지만 미술에 천재성을 지닌
신동민 (밀알학교 고등부 3학년)

"어느 날 밤 집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다리를 잃었고, 상반신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저 이외에 살아남은 가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쟁으로 남편과 아들이 죽고, 남은 아들마저 실종되었어요. 시리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레바논으로 피난을 왔죠. 레바논에서 힘겹게 집을 구했는데, 지붕이 없는 집이에요."

레바논, 시리아 **난민 긴급구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글 긴급구호팀 **임민경, 최미림** **사진** 국제협력팀



파트메 파드 알 아흐마드씨 가족

레바논, 시리아 난민 긴급구호 현장일지

밀알복지재단은 2013년 12월 19일 긴급구호팀 1진을 파견하고, 1월 13일 긴급구호팀 2진을 파견하여 시리아 난민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호 활동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자동차로 약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최대거주지, 베카(Bekka)지역의 사드나일(Saad Nayle)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곳은 시리아의 국경 지역이다. 산을 하나만 넘어가면 고향에 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은 이곳에서 텐트 생활을 하며 겨울을 보내고 있다. 우리재단은 시리아 난민 긴급구호 사업으로 500가정을 대상으로 식량키트 1, 2차 배분을 마쳤고, 향후에는 비식량 배분 및 밀알이동학교(Miral Mobile School)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 첫 번째

눈이 한차례 내려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2월 5일, 밀알복지재단 긴급구호팀 2진은 난민캠프를 돌아다니며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피드백 수령을 위해 인터뷰를 실시했다. 처음 만난 사람은 제 6 캠프의 리더이자, 일곱 아이들의 엄마인 파트메 파드 알 아흐마드씨였다. 파트메씨의 아이들은 텐트 앞 진흙탕에서 뒹굴거나 집 안에서 엄마 곁에 머물렀다.

밀알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인가요?

아뇨, 보시다시피 이곳의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심지어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니까요.

밀알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이곳으로 넘어와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심지어 제 어린 딸아이는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러다간 문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글을 읽고 쓸 줄 알지만 각박한 현실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기란 매우 어려워요. 저는 제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우선 문맹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아이에게 학교란 신기한 놀이터와도 같을 거예요.

밀알 밀알복지재단에서는 지금 이동학교를 계획 중에 있고 곧 학교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아이들은 지금 밀알이동학교를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어요. 제 아들은 심지어 매일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옷을 추스르고는 언제쯤 학교가 시작되는지, 선생님은 언제 오는지를 저에게 묻습니다. 시리아에 있을 때는 학교 가기 싫다고 매일 울던 녀석인데 여기서는 매일 학교를 기대하고 있다니…….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해요.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야 하구요. 하루 종일 흙바닥을 뒹굴며 노는 것은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놀이가 아닌 것 같아요.

파트메씨는 인터뷰 내내 그녀 뒤에 숨어서 수줍게 얼굴만 내밀던 막내딸을 앞으로 밀었다. 우리는 큰 눈을 가진 막내딸 마람에게 어떤 수업을 듣고 싶은지 직접 물어보았다.

저는 영어 수업을 듣고 싶어요. 제 친구들은 ABCD 노래를 부를 줄 알지만 저는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전 창피해지기도 하고, 속상해요.

먹을거리가 귀한 난민촌 생활이지만 전 세계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다. 자식의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파트메씨는 훗날 살아갈 아이들을 걱정하며 밀알이동학교 설립을 반겼다. 교육은 아이들의 희망이자 미래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희망과 미래이기도 하다. 공부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이들이 오늘도 여전히 흙바닥을 뒹굴고 있다. 내일은 학교에 갈 수 있기를, 손에 연필을 쥐고 선생님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기를, 우리에겐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 이 아이들에게도 당연해지기를 바라본다.

난민촌 텐트 안의 아이들



긴급구호물품 배분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 두 번째

두 번째로 방문한 제 3 캠프에서는 파트메 술탄 알시크마니씨를 만났다. 그녀는 현재 27살이고 4명의 자녀가 있다고 했다. 그녀는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남편을 기다리며 남편이 없는 또 다른 여성과 가족을 이뤄 낡은 텐트에서 지내고 있다. 그녀를 꼭 닮은 4명의 어린 자녀들은 서로 의지하며 잠시도 떨어지지 않은 채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다.

밀알 레바논으로 넘어 오기 전 시리아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시리아의 '호모스'라는 마을에서 남편과 4명의 아이들과 살고 있었어요. 현재 레바논에 온지는 4개월 정도 됐어요. 저희 가족은 시리아에서 꽤 좋은 환경에서 살았죠. 좋은 차와 큰 집,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어요.

밀알 그런데 어떻게 레바논으로 이주할 생각을 한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차를 운전하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들을 수도 알 수도 없었어요. 저희 집은 공항 근처였는데 공항에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기로 선택한 거죠. 저는 아이들 넷과 함께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야만 했어요. '에르셀'이라는 국경 마을을 지나 산에서 아이들과 하룻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아직도 그날의 추위와 깊은 밤의 어둠이 잊혀 지지 않아요. 다만 아이들이 기억하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그녀의 커다란 눈과 그 눈을 꼭 닮은 네 아이들의 눈은 장작이 없어 타지 못하는 난로에 고정되어 있었고, 시리아 사태 이후 그녀의 삶에 생긴 변화에 대해 말해 주고 있었다.

파트메 술탄 알시크마니씨 가족





긴급구호 식량 키트

밀알 현재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실 모든 것이에요. 커다란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저는 남편도 없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가 얼마나 힘든지 상상 할 수 있겠어요?

밀알 현실적인 문제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아플 때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요. 레바논의 치료비는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조차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없다는 것이 엄마의 입장에서 제일 속상하죠. 이번에 밀알복지재단에서 주셨던 음식들 덕분에 이번 달은 아이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었어요. 특히 가루우유는 저희 막내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줄 수 있는 것들이 콩, 밀가루 밖에 없었는데 아이에게 우유를 먹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던지…….

인터뷰 시작 후 단 한 번도 웃음을 보이지 않았던 파트메 술탄 알시크마니씨는 품에 있던 막내아이를 힘껏 껴안으며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다. 그녀는 아이에게 우유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해 했지만 곧 떨어져가는 식량에 대해 걱정하며 미소가 옅어졌다.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남편을 기다리며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어린 아이를 달랠 수밖에 없는 파트메씨. 우리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국경을 넘어선 긴급구호 활동

"저는 아내와 자녀 5명과 함께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지원해주는 식량보조금 27달러(월)로 살아가고 있는데, 먹을거리가 항상 부족합니다. 13kg정도의 식량이면 저희 가족이 1개월 정도 지낼 수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당시 충격으로 하반신 마비를 입어 6개월째 누워서 지내고 있는 야세르(42세)씨는 밀알복지재단 긴급구호팀 1진이 배분한 식량 키트를 받았다. 키트는 13kg으로 쌀, 잡곡, 콩, 녹두, 가루우유, 설탕, 소금, 밀가루, 냅킨 등이 담겨있었다. 배분은 긴급구호팀 1진이 12월말부터 2주간에 걸쳐 1차 구호대상자로 선정한 247가정의 정보를 우선 취합하고, 현지인 조사자가 가정들의 정보를 조사한 후 우리재단의 스텝이 다시 캠프를 방문하여 확인, 조정해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난민들은 수시로 사무실을 찾아와 자신들의 상황을 호소하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오기도 했다. 1월 20일부터 약 2주 동안 긴급구호팀 2진은 2차 식량키트 배분가정을 조사하고, 1월 28일 바우처 배분, 1월 31일 식량키트 배분을 진행했다. 2차 식량키트 배분대상은 1차 배분 때 지원받지 못한 가정들과 새롭게 정착한 난민 가정들을 중심으로 선별되었다.

난민들은 식량키트가 담긴 트럭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급구호 팀에 환호를 보내며 감사의 환영과 기쁨을 표현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리아난민 식량배분 긴급구호는 단순히 구호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개발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아랍어, 수학, 영어,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밀알이동학교를 운영할 것이고, 유아교육을 위한 어머니교실, 컴퓨터교실, 축구교실, 보건위생교육 등도 구상하고 있다. 밀알복지재단 사업장 사드나일 지역에 아랍어를 배우는 목소리와 ABCD 노래 소리가 들리기를, 전쟁 중에도 웃음꽃이 피어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밀알

“우리 예빈이가 변했어요.”

글, 사진 국내사업팀 **김래홍**

예빈(가명)이는 이제 갓 두 돌이 된 아이입니다. 하지만 풍선처럼 배가 불러서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예빈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들의 옷이 참 예쁘더라고요. 예빈이는 배를 가리기 위해 큰 옷을 입어야만 해요. 예빈이에게 또래 아이들과 같이 몸에 딱 맞는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어요.” 예빈이 부모님의 마음처럼 예빈이에게 작은 변화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간이 굳어져 가는 병

예빈이는 선천적 담도폐쇄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담즙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아 간에 쌓이게 되고 결국 간 조직 손상까지 이어져 간을 이식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간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예빈이의 몸에 이상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간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처리해줘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해주지 못하자 황달이 나타난 것입니다. 황달은 점점 심해져서, 피부와 눈의 흰 자위마저 노랗다 못해 푸른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예빈이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배에 차오른 복수였습니다. 간이 비대해져 장기를 누르고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조금씩 불러오던 배가 어느덧 터지기 직전의 풍선같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불러온 배에 장기가 눌려서 예빈이는 숨을 가빠했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프다며 배를 가리켰습니다.

마음으로 우는 예빈이

예빈이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외출하기 어려워 거의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간혹 놀이터로 외출을 나가는 날이면 소풍을 가는 것 마냥 신나했습니다. 하지만 놀이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예빈이가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려하면, 무서워하며 접근을 막았습니다. 자신의 신체

변화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주변사람들에게 오지 말라며 떠밀고, 울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빈이는 신체변화로 인해 대인기피현상이 생겼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의 간 이식 시도, 실패

예빈이 엄마는 예빈이를 위해 간을 이식해주려고 했습니다. 혈액형이 같고, 모녀지간이기에 간 조직이 잘 맞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검사 결과 간 이식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사자의 기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증자가 나오더라도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빈이의 아빠는 음식점 배달 일을 하고, 쉬는 날에도 인력사무소에 나가보지만 습관성 어깨탈골로 인해 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조차 밀려있는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큰 수술 금액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는 예빈이의 부모님. 아이에게 몹쓸 병을 주었다는 죄책감과 치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예빈이에게 찾아온 기적, 수술 시작

유독 추웠던 어느 날 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뇌사자 기증자가 나타났으니 지금 당장 병원에 입원하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술을 미루면 당장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에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하였습니다. 곧장 밀알복지재단은 예빈이의 수술을 위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뇌사자 기증자가 기적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예빈이를 위한 작은 손길들을 모아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리라 결심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무명으로 큰 금액을 선뜻 지원해주신 후원자님, 방송을 보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전화후원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님, 다양한 나눔의 모습으로 참여해주신 후원자님들로 인해 예빈이를 위한 생명 지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예빈이가 또래 아이들처럼 예쁜 옷도 입고 뛰어놀 수 있게 될 것이란 희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길이 만든 커다란 변화

다양한 사랑의 손길을 통해 예빈이는 성공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마쳤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예빈이는 오랜 수술을 잘 견뎌냈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맘껏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통원치료와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힘껏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랑의 손길로 예빈이는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맘껏 누려봅니다. 아빠는 예빈이를 위해 빨간 구두를 사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이었던 일들이 예빈이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나눔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 같은 일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 예빈이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밀알

후원 신청 문의 1899-4774

■ 후원 계좌

- **우리은행** 322-058119-13-001
- **신한은행** 140-006-896511
- **하나은행** 810-213130-00104
- **예 금 주** 밀알복지재단

■ "기적을 품은 아이들" 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

뇌병변, 뇌성마비, 희소난치성 질환 등 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수술비 및 결연후원을 통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빠른 재활을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 상

만 18세 미만 뇌병변, 뇌성마비, 희소난치성 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수술비 (1,000만원 한도)
- 치료비 (월 20만원)

여러분들의 후원금은 예빈이와 같은 장애아동의 의료비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수술, 결연의료비로 사용됩니다.

숨길 수 없는 빛의 이야기, 연길밀알학교

글, 사진 연길밀알학교 교사 **이지연**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들

2년 전 중국 연길밀알학교 '사랑의 집'으로 파견되었던 첫 날, 만났던 13명의 장애 아이들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에서 2명의 봉사자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웃음으로, 행동으로 그 기쁨을 고스란히 전달했던 아이들. 2012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고, 첫 교육 활동은 외출이었습니다.

연길은 북쪽 지방이라 유난히 긴 겨울과 추운 날씨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장애 아이들은, 특히 이동보조도구(휠체어)나 봉사자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하여 11월부터 봄이 찾아오는 4-5월까지 현관 밖 조차도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손도 부족했고 혼자서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늘 창 밖으로 세상을 보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의 지원을 통해 휠체어와 유모차를 구입하여 매일 산책을 하고, 딸기와 살구를 따고, 고추밭과 상추밭에 들어가 고랑을 지나며 야채를 따서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사랑의 집의 소나무 길을 지나 도로까지 나가서 버스, 오토바이, 트럭, 택시를 보며 손을



● 연길밀알학교 활동내용



장애 학생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공간 및 시설 확충

교실, 일상생활실, 운동실 및 교실 기자재 · 학습 도구 마련



장애 학생의 개별 욕구에 맞는 교육 활동 제공

기본학습(국어, 수학, 과학, 미술, 체육, 음악), 1 : 1 개별 지원 학습



체험 활동을 통한 장애 학생의 일상생활 훈련

월 1회 야외활동(영화관람, 마트 · 버스 경험 등), 소풍 및 체험학습
(텃밭 가꾸기, 집안일 돕기 등)

흔들고, 새로운 세상에 웃음 짓고, 돌아오는 길에 강아지, 토끼, 새, 오리, 닭, 고양이들과 인사를 나누면 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2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새로 생긴 샤브샤브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주인에게 "우리 아이들도 이곳에서 식사를 하면 너무 행복해 하겠다." 고 말했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어 그 식당에서는 지금까지 매달 1회 아이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외출이 없었던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번 외식하는 시간이 생겼고, 아이들은 새 신발을 신고 외투를 입으며 멋도 부리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면 기사 아저씨께 "집에 가지 말고 공원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할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요즘은 "이번 달에는 샤브샤브 말고 자장면 먹으로 갈까요?" 하고 먼저 제안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방학에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택시를 타보고, 마트에 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보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야식을 먹고 야경을 보며 반짝이는 불빛과 놀이광장에서 보내는 시간에 좋아하던 아이들의 표정은 마치 세상을 처음보는 것과 같이 흥분된 얼굴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연길밀알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밀알에서 시작되는 원대한 꿈

2012년 5월 29일 저를 포함한 2명의 특수교사가 중국 연길로 파견되었을 때, 우리는 맨 먼저 학생들과 함께 할 공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빈 방 3개, 넓은 상 1개가 전부였고, 특히 혼자 보행할 수 없는 뇌병변 장애 학생들이 자세 보정 없이 바닥에 누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연길밀알학교 '사랑의 집'에 거주하는 13명의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규모는 작지만 교실을 구성하고, 교실 안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책장과 텔레비전, 학습에 필요한 학습물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학교로 뛰어옵니다. 연령에 따라 두 학급으로 분리하여 각 반에서 선생님과 함께 매일 국어, 수학, 과학, 미술, 체육, 음악, 요리, 게임을 하며 오후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집으로 돌아가 시간을 보냅니다. 비록 우리는 사랑의 집 1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은 방을 교실로 만들어 교육할 뿐이지만, 곳곳에서 사랑의 집으로 장애 학생들을 데려와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애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찾아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보고 가기도 하고, 특히 장애가 심한 중복장애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놀라워하곤 합니다.

연길 사랑의 집에 해마다 수많은 단기 봉사자들이 찾아오고 있고, 장애 학생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자원하여 1년 이상 봉사하는 현지 봉사자도 생겼습니다. 여름이 되면 2년이라는 봉사기간이 마무리 되어 이곳에는 밀알복지재단에서 파견하는 새로운 봉사자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 2년 뒤의 이곳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집 13명으로 시작한 장애



학생 교육이 과연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장애아이로 태어나면 무조건 버려지는 이 땅, 중국 연길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아이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아픔을 겪어야 했던 사랑의 집의 귀한 아이들. 바로 이 아이들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봉사자들이 생겼고, 관심을 가지는 장애아동 학부모님들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숨길 수 없는 빛과 같이 퍼져서 연길을 변화시켜나갈 것이란 기대가 생깁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상상하면 즐거운 하루하루가 펼쳐집니다.



밀알복지재단이 만난 SK건설

마음이 행동이 되기까지

글, 사진 홍보팀 장혜영



SK건설 이광석 사회공헌 사무국장

마라톤 동호회에서 매년 두 차례 '행복나누기 자선 레이스' 행사를 열고, 기금을 마련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한다. 환경의 소중함과 보존의 필요성을 전하는 '행복한 초록교실'을 개설해 직원들이 1일 강사로 나선다. 전 직원이 '희망메이커'에 가입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후원하고, 회식자리에 초대해 함께 영화를 보고 운동을 한다. 이것은 SK건설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Build a Dream'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 SK건설, 그리고 나눔을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로 전환한 이광석 사회공헌 사무국장. 그의 '꿈을 세우는 일'을 들어 보았다.

밀알 SK건설 사회공헌 활동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과거에도 나눔을 했지만, 구성원 각자가 실현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보통 그때마다 후원대상을 찾아서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희망메이커'를 기획하여 운영한 결과 99%의 직원이 가입해, 회사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금이나 포상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기부하는 것은 문화처럼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관심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희망댓글'을 운영합니다. 매달 한 후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트라넷에 게재하고 직원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다는 만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일상적인 일로 여길 수 있도록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밀알 자연스러운 나눔 문화가 만들어진 계기가 있었나요?

나눔을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듯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후원아동 이야기를 한다면……. 참여하지 않는 직원은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하고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99%가 희망메이커에 가입되어 있는데, 1%는 휴직자, 퇴직을 하고 아직 발령이 안 된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알 후원아동을 초대해서 회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후원자 가정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고, 준비되지 않은 직원들은 후원아동과 친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식 때 아이를 초대한다면 같이 영화를 보러가거나 볼링을 치러가는 건전한 회식문화가 만들어지고, 참여하지 않던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나눔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눔은 비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을 더 하느냐, 신경을 더 쓰느냐의 차이죠. 저희 사회공헌활동의 기본은 구성원입니다. 구성원이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구성원이 봉사활동을 하고, 희망메이커를 통해 커뮤니티 차원으로 확산이 되면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동심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밀알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회공헌 활동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요양시설의 치매노인들을 찾아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직원들 중에는 말을 곧잘 나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계속 다니다보니 어느새 어르신들과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이건 훈련이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만났던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마나이가 생각납니다. 마나이가 부풀어 오른 혀를 치료하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낯선 환경 탓에 고집을 많이 부렸습니다. 엄마 뒤에 숨어서 말도 안하고 사람들을 피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악수를 청하니 선뜻 받아주더라고요. 말은 통하지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않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 희망메이커 후원 아동의 홍수 피해 복구 지원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나 담담하게 일상적인 일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일어났고, 올해도 그렇다면서 말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움에 적응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래서 'Build a Dream'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청소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가끔 10만원을 후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원하는 만큼 실제 느끼는 도움은 큽니다. 늘 옆에서 응원해주는 또 하나의 가족이고 싶습니다.

밀알 마지막으로 이광석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나눔이란 무엇인가요?

'나눔'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딱 하나, 그것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가 있듯이 나눔은 머리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더라도 그것을 시작하면 본인은 나눔의 10배, 20배 이상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자신에게 대한 투자랄까요? 훗날 뒤돌아보았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했지?'라고 떠올려본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 나눔이 아닐까 싶습니다. 밀알

김성민 후원자의 함께 하고 싶은 일

글, 사진 홍보팀 장혜영

하루는 수많은 우연으로 이루어진다.
누군가는 그 우연을 알지 못한 채 지나가고, 누군가는 그 우연을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간다. 김성민 후원자가 밀알복지재단을 만난 것은
우연히 지하철역을 걸어가면서였다. 그녀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밀알복지재단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우연한 만남

우연에 대한 한영사전을 찾으면 크게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온다. 가능성과 기회를 뜻하는 chance와 사고와 운이 없는 일을 뜻하는 accident. 김성민 후원자에게 나눔을 시작한 계기를 물으니 '우연히'라고 말했다. 그녀가 밀알을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캐나다에서였는데, 주변 사람들을 따라 우연히 밀알선교단 캐나다지부에 가보게 되었다고. 그곳에서 장애인을 돕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 성민씨는 1년 동안 활동하며 장애인과 친구가 되었다. "제가 만난 분은 말을 못하시고 자폐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도와드렸다기보다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숨기잖아요. 또 거짓말도 하고 착한 척 하기도 하고.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더라고요. 본 모습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온 성민씨는 지하철역에서 거리캠페인 중인 밀알복지재단을 만났고 후원을 시작했다. 성민씨에게 '우연'이란 뜻 깊은 활동으로 연결되고 새로운 후원으로 이어지는 '다리'와 같은 것이었다.

힘들었던 시간에 알게 된 소중한 것들

성민씨는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2012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1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일을 했고, 내년 대학 입학을 계획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져 힘들었을 법도 한데,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처음엔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감사한 마음만 생기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으니까 가족이 뭉치게 되고,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었어요." 성민씨에게 힘들었던 시간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았다.

이제, 함께 동행

2013년 12월 제 1회 회원 소모임 '마다가스카르를 만나다'에 성민씨는 동생과 함께 참여했다. 의료선교에 관심이 있던 동생이기에 부시맨 닥터로 불리는 이재훈 지부장님의 현장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지하철역을 걷다 거리캠페인 부스를 만나면, 친구들에게 후원을 권하기도 한다. 좋은 것을 알게 되면 주변에 알려주고 싶어지듯이 이제, 성민씨에게 후원이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되었다. 후원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성민씨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나누면서 행복해지고 새 힘을 얻어요." 라고 말하며 후원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훗날 장애인과 보통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유치원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는 성민씨. 그녀가 말하는 '함께'에 방점을 찍어 본다. 밀알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 ‘방이역 일대’

글, 사진 작가 **정지영**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는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직접 서울 이곳저곳을 누비는 활동입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턱없는 매장, 편견 없이 장애인들을 친절하게 맞아주는 착한 가게, 장애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쉴만한 장소 등을 찾아 지도로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밖을 나서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심하고 찾아갈 만한 곳들을 미리 지도로 만든다면 그들의 소풍은 조금이나마 즐거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



방이역 주변 추천 장소

한적하고 편안한 동네

방이역 주변 혹은 방이역이라는 곳이 많은 사람에게는 낯선 곳일 것이다. 사람들이 몰리거나 유명한 곳이 아니라서 지도그리기를 통해 소개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사람이 몰리고 복잡한 곳보다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의 지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특별한 지도그리기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의 상식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곳의 지도를 그려가고자 한다.

잘 알려진 편은 아니지만 방이역 주변은 장애인에게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이다. 우선 방이역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편이라 역을 이용하거나 지상으로 이동하기가 편리했다. 먼저 역에서 나오면 쭉 뻗은 보도가 시원한 느낌을 준다. 보도는 경사가 거의 없는데다가 자전거 도로가 잘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로 이 길을 따라 이동하면 더없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길은 조경도 잘 되어 있어 시각적으로도 상쾌함을 주었다.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

쾌적한 도로를 따라 5분 정도만 이동하면 올림픽공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공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방이역 주변을 추천하는 큰 이유이기도 하다. 공원에 다다르면 커다란 사거리를 건너야 하는데 횡단보도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약간의 경사로를 지나야 하고 차도가 넓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경우나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

올림픽공원은 소마미술관과 조각공원 등 즐길 거리가 많은 편이다. 공원 내에 카페나 음식점, 편의점 등이 있어 편리하고, 또 공원 자체가 넓고 아름다워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다. 게다가 종종 공연이 열리기 때문에 공연과 맞추어 와도 좋겠다.

방이역에서 공원까지, 그리고 공원을 마주본 길을 따라서는 고급 음식점들이 이어져 있다. 하지만 고급음식점이라고 말하기 무색하게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막상 장애인이 갈 곳은 거의 없었다. 몇몇, 공원으로 가는 길 중간에 유기농식료품점 ‘올가’가 있는데 주차장을 통해 경사로로 바로 출입이 가능했다. 그리고 근처의 ‘벽제갈비’에도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방문해 볼만 했다.

방이역 주변 추천 장소

방이역 주변에서 추천할 만한 곳은 1번 출구를 나오자마자 만나게 되는 유명 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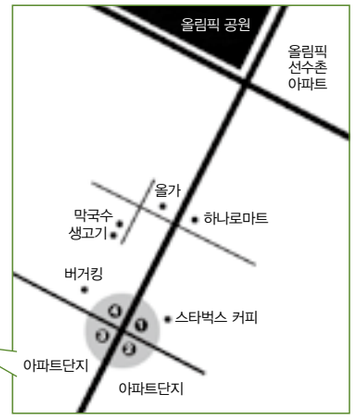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출구 바로 앞이라 약속장소로도 알맞은 카페는 턱없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로도 출입이 쉬웠다. 그리고 문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는 해도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였다. 매장 안도 여유롭고 넓은 편이라 휠체어로 이동하거나 의자 대신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았다. 또한 자동문이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각각 설치되어 있어 망설임 없이 방이역 주변 약속 장소로 추천하고 싶다.
1번 출구의 건너편인 4번 출구 주변 골목 안쪽으로 카페와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지만 추천할 만한 곳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 가볍게 식사를 하고 싶다면 4번 출구에서 뒤로 돌아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바로 만나는 던킨도너츠와 버거킹 햄버거가 있다. 두 점포 모두 경사로 설치로 휠체어 입장이 가능하고, 1층 매장이라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앞서 소개한 벽제 갈비 뒤쪽 작은 골목에는 막국수집과 생고기집이 있는데 턱이 없어 또한 이용이 가능하다. 1번 출구 주변으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있어 편리하고, 조금 더 둔촌동 방향으로 올라가면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있어 은행 업무를 볼 때 이용해도 좋겠다.



주차한 자동차로 가로막힌 경사로

아쉬움이 남는 곳

대형 건물에는 보통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하나로 마트가 위치한 건물도 규모가 아주 큰 편이라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승강기를 이용해 마트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무신경하게 주차한 자동차 때문에 휠체어용 경사로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었다. 만약 휠체어를 탄 사람이 마침 방문했다면 얼마나 그 차를 원망했을까?
1번과 4번 출구에서 나오면 길고 넓은 보도가 있다. 이 길에는 나란히 조경이 되어있어 운치를 더하고 있는데, 보기에는 좋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중간 중간 계단만 설치되어있어 장애인에게는 이 조경 공간이 벽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 중간 중간 길을 좀 더 내주었다면 장애인도 편하게 이동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또 휠체어 이동은 편리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추천 장소였던 스타벅스 건물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전용 출입구가 안내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체인으로 막혀 있었고 전용 출입구는 너무 좁아 아쉬움을 남겼다.



총 평 공원이 근처에 있고 여유로우며 보도가 잘 설치되어있어 장애인의 이동에 좋은 곳이라 생각된다. 다만, 즐길 거리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접근성 : ★★★★ 편의성 : ★★★★ 재 미 : ★★ 밍앙

사회적 환경이 만드는 장애인은 없을까?

글 Closer 서포터즈 **임정균**

1월 25일(토), 특별한 지도 그리기 활동을 위한 장애체험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방이역으로 향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지영 작가님의 체험담을 듣게 되었는데, 장애인의 불편함을 체험해 보고자 휠체어를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는 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계단의 턱이 높고 입구가 좁아 굉장히 불편했었다는 이야기를 한창 듣던 중, 나는 궁금증을 견디다 못해 속사포처럼 질문들을 쏟아내었다.

"과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장애인으로써 구분 지어져야 하는 것인가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막연하게 '있어야지, 필요하죠'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것들이 모든 장애인들에 대해서 적합한 구조물들인가 한번쯤은 생각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혹은 주변에 몸이 편찮으시거나 불편하신 분이 없다면 장애인을 볼 기회는 극히 드물 것이다. 그래서 평소 만나지도 못한 장애인분들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생각해보고 이해하기란 막연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경기도 소재의 재활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 6년차에 접어든 물리치료사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걷고 싶어요.", "독립적으로 혼자서 생활하게끔 해 주세요."

'식사하고, 옷 입고, 세면하고, 앉고, 일어서고, 걷는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을 가능한 한 타인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만 있다면 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이 완치가 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나는 배웠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단순히 입고 먹고 걷는 것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도 학업과 문화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장애인을 위한 지도 그리기 활동을 하는 우리 장애체험 서포터즈 활동의 모토가 되었다.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에는 장애와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 모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 '사회적 모형' 논리에 대해 말하고 싶다. 장애는 한 개인의 특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 바로 사회적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복합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행동이 필요하고, 사회생활 전반에 장애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내가 장애체험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동기가 되었다. 우리의 활동이 외출을 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로 보이겠지만, 우리의 외출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장애인들의 생활에 관심이 생기기를 바라본다. 밍앙

법인사무국 소식














01 밀알복지재단 시무식

1월 15일(수), 우리재단 법인사무국과 43개의 산하 시설 임직원들이 밀알학교에 모여 2014년 시무식을 진행하였다.

02 MBC 나누면행복 진행

배우 노현희씨가 지난해 12월 17일(화), 4박 5일 일정으로 MBC '나누면 행복'과 함께 필리핀의 만다웨 쓰레기 마을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이 활동은 1월 9일(목) MBC '나누면 행복'을 통해 방영되었다.

03 온라인 서포터즈 밀알온 3기 발대식

온라인으로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는 밀알복지재단 온라인 서포터즈 밀알온 3기 발대식이 1월 8일(수) 우리재단 법인사무국 3층에서 열렸다.

04 레바논, 시리아 난민 긴급구호팀 파견

지난 2013년 12월 19일(목), 레바논에 긴급구호팀 1진을 파견한 우리재단은 1월 13일(월) 긴급구호팀 2진을 파견하여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사업을 펼쳐 500가정에 식량키트 1, 2차 배분을 마쳤다.

05 나눔대사 류수영과 함께하는 '제로의 기적'

우리재단 나눔대사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 류수영씨가 목소리 재능기부에 나섰다. 류수영씨는 '제로의 기적' 오디오북 내레이션에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수익금 전액을 우리재단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06 (주)영원무역, 우간다에 나눔의 손길

1월 16일(일), (주)영원무역이 기증했던 선물이 우리재단 우간다 및 탄자니아 지부에 도착했다. 선물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용이 용이한 이동식 테이블 세트, 식기 세트, 이동식 매트 등이다.

07 MVP성형외과와 기부금 전달식 가져

1월 27일(월), MVP성형외과와 소외계층 장애인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MVP성형외과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우리재단과 안면장애인의 수술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협약식을 맺어 3년째 구순구개열, 화상 장애인 무료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08 밀알아트센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우리재단 밀알아트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조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5월 10일 재산세 관련 부과한 처분 내역 모두 취소한다"고 2월 5일(수) 판결했다.

09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활동단원 오디션

2월 10일(월), 첼로에 재능 있는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활동단원 오디션을 진행했다. '날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동양생명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교육 및 공연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산하시설 소식












01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랑의 장난감' 전달식

1월 13일(월),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홈플러스 e파란재단이 참여한 가운데 미미월드에서 기부한 2만 4천여 개의 장난감 전달식이 열렸다. 이 장난감은 전국 공동육아나눔터에 전달되어 여러 가족이 함께 다양한 장난감을 공유하며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02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 모임

1월 10일(금),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자조모임 '남편의 자격'이 열렸다. 가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배우자간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 돕는 모임을 진행했다.

03 굿윌스토어 도봉점, 효성그룹 자원봉사활동 실시

1월 6일(월), 효성그룹에서 14명의 직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도봉점에서는 굿윌스토어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장애인의 유형과 접근방법 등을 교육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고, 효성그룹 직원들은 상품화, 커머셜, 영업팀에 배치되어 맡은 업무를 진행했다.

04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위탁5주년 기념식

1월 16일(목), 밀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축하하고 격려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05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스페셜데이 실시

1월 28일(화), 설을 맞아 고객감동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직원들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다.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며 스페셜데이를 실시하였다.

06 도봉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증가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 배정수(249개)가 전년도(175개) 대비 42.3%증가하였고, 공익형(다복솔)사업이 연중사업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전담인력도 2명 확대되어 2월 1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07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과 함께하는 웃음 한마당'

2월 12일(수),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도봉구치매지원센터 강당에서 '어르신과 함께하는 웃음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바로선병원에서의 정월대보름 부럼 후원과 아리솔어린이집 원아들의 공연, 원장님의 마술쇼, 초대가수의 무대로 어르신들이 모처럼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08 도봉실버센터, 설 전통 행사 열어

1월 29일(수), 장기요양, 주·야간보호 어르신을 대상으로 설날행사를 가졌다. 만두 빚기, 세배 드리기, 윷놀이 등을 통한 설 전통행사로 진행되었고, 더불어 한소리 민요단과 유화어린이집 아이들이 어우러져 따뜻한 설날을 만들었다.

09 면일어린이집, 제 28회 졸업식

2월 15일(토), 제 28회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졸업식이 끝난 후에는 졸업생 가족들과 직접 만든 자장면을 먹는 자장면 파티로 축하분위기를 더했다.

산하시설 소식












10 목련어린이집, 장애아동 방과 후 방학프로그램 진행

장애아동 방과 후 학급 공룡반이 1월 23일(목), 부천 웅진플레이도시에 있는 눈썰매장으로 겨울철 놀이를 다녀왔다. 실내에서 경험한 겨울 활동이었지만 인공 눈을 맞고 눈썰매를 타며 서로가 즐거움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다.

11 밀알그룹홈 나눔의 집, CGV 영화관람

1월 25일(토), 주말프로그램을 진행해 공동생활가정 나눔의 집 이용자가 보고 싶어 하던 로맨틱 코미디 영화 '수상한그녀'를 관람했다. 1월 28일(화)에는 설명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12 밀알베이커리, '나눔의 숲 캠프' 참가

2월 7일(금)~8일(토), 강남구직업재활센터 밀알베이커리는 (재)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2014년 나눔의 숲 캠프'에 참가했다. 목재로 된 스틱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꾸미는 스틱아트,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네이처스토리텔링 등의 활동으로 동료 근로 장애인과 하나 되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13 밀알주간·단기보호센터, 동절기 현장학습

1월 22일(수), 동절기 현장학습으로 어린이대공원 눈썰매장을 다녀왔다. 추운 날씨였지만 겨울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14 부암어린이집, 부암 천사들의 축제 개최

1월 18일(토), '부암 천사들의 축제'를 통해 아이들은 열심히 연습한 공연을 했다. 또한 아빠, 엄마와 함께 만든 무대를 발표하는 감동의 시간을 가지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15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지원으로 1월 동안 낙상위험에 있는 재가어르신 17명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보조기구 설치 및 지원을 진행하였다. 지팡이, 고관절 보호대 등의 실외용 보조기구 뿐만 아니라 화장실 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실내용 보조기구도 지원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낙상위험을 감소시키게 되었다.

16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기증용 봉투 납품

1월 9일(목), 굿윌스토어 밀알 송파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증용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첫 생산 및 납품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상호 협력과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17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설 명절 사랑나눔

1월 27일(월),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100여 명을 초청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설 명절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한밭무용단에서 준비한 춤, 이효성님의 퓨전민요 공연, LG화학 여수 ABS/EP공장에서 준비한 선물세트와 한화생명과 농협은행 신여수지점이 후원하여 끓인 떡국으로 풍요로운 설 행사를 진행했다.

18 안산밀알보호작업장, 지역사회 식당이용하기

1월 20일(월), 지역사회 내 식당(감자탕집)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행보를 하고, 식당이용에 대한 예절 및 식당이용방법을 체득해 일상생활의 적응영역을 넓혔다. 지역사회 내 식당이용이 자연스러워져 지적장애인 스스로가 식당 이용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산하시설 소식













MIRAL
Welfare Foundation

19 안산밀알센터, '체험 현장속으로 가GO 즐기GO'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성인 장애인의 다양한 계절체험 활동 및 안전교육(성교육, 치안교육, 소방교육, 교통안전), 지역축제 참여를 기본 골자로 하는 '체험 현장속으로 가GO 즐기GO'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20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설날행사 진행

1월 28(화), 복지관 4층에서 설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요 및 트로트 공연관람과 윷놀이, 투호놀이, 비석치기, 팽이치기, 새해 소망 적기 등의 프로그램을 가졌고, 어르신들께서 직접 떡메를 치며 떡과 음료를 나누어 먹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21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눈썰매 체험

1월 21일(화), 현장학습으로 안산눈썰매장을 다녀왔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다 같이 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22 중림어린이집, '큰 사랑 나눔 잔치' 참여

2월 21일(금),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후원하고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협의회 주체로 '큰 사랑 나눔 잔치'가 열렸다. 이날 중구에 있는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만 5세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대표로 나와 음악발표회를 했고, 중림어린이집 만 5세반(밝은 반)도 이날 대회에 참여하여 핸드벨 연주, 멜로디언, 합창 등을 선보였다.

23 청마을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가져

2월 8일(토), 새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신학기 영아들의 적응프로그램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환영하는 시간을 보냈다.

24 청밀, 설맞이 사랑의 KIT나눔 행사 진행

1월 25일(토)~26일(일), '2014 설맞이 사랑의 KIT나눔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으로 기획되었다. 진행에는 사회적기업 청밀과 영보자애원, 자원봉사자 등 170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KIT 5000여 개를 제작해 경기도 내 푸드뱅크에 전달하였다.

25 한우리주간보호시설, '가족 재발견' 희망여행

1월 17일(금)~18일(토),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희망여행 '가족愛 재발견'을 다녀왔다. '가족愛 재발견'은 하나투어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인 희망여행 프로젝트로, 강남구직업재활센터 한우리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가족들이 참가했다. 하나투어 직원들이 여행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동행하기도 했다.

26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서울 눈 축제 참여

2월 5일(수),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된 서울눈 축제에 참여했다. 겨울 스포츠를 즐김과 동시에 전쟁기념관을 관람하며 각종 전쟁에 대한 이해 및 전사자에 대해 추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밀알복지재단
회원모니터링 "어울림" 회원 모집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어울림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드실 회원님을 찾습니다.

밀알복지재단 회원 모니터링 "어울림"은 회원님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밀알복지재단의 구석구석을 알려드리고, 회원님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더 많은 소외된 이웃과 후원 회원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 집]

지원자격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3개월 이상 후원하신 만 20세 이상 회원
오프라인 정기모임에 참여 가능한 회원

모집인원 20명

활동기간 2014년 4월 ~ 10월(7개월)

활동내용 밀알복지재단 사업 및 운영 안내
국내사업 기관 라운딩
회원서비스 모니터링

활동혜택 모니터링단 활동증명서, 봉사활동증명서 발급
소정의 기념품 제공
회원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신청방법 지원 마감일 : **2014년 3월 31일(월)**

① 이메일 접수 :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하여 이메일로 지원
메일주소 membership@miral.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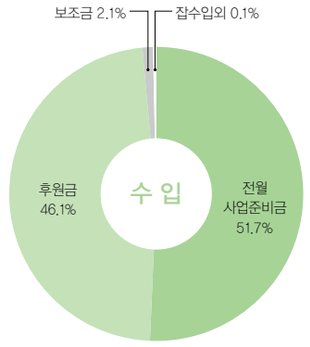
② 모바일 접수 : 모바일을 통해 QR 코드 인식 후 지원서 작성
(모바일 포털사이트
어플리케이션 → QR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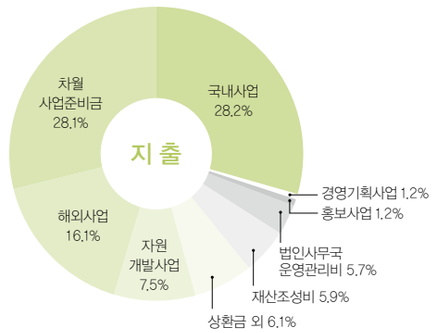
일 정 모니터링 회원 발표 : **4월 7일(월)**
오리엔테이션 : **4월 25일(금)**

문 의 회원관리팀 **윤수현** 주임(070-7462-9073)

2014년 1월 ~ 2월

밀알복지재단 결산보고





수 입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총 계		3,771,437,655	100.0%
보조금	소 계	78,751,000	2.1%
	기타보조금	78,751,000	100%
후원금	소 계	1,738,702,215	46.1%
	비지정후원금	1,253,681,940	72.1%
	지정후원금	485,020,275	27.9%
잡수입 외		5,426,517	0.1%
전월사업준비금		1,948,557,923	51.7%

지 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총 계		3,771,437,655	100.0%
법인 사무국 운영 관리비	소 계	214,159,993	5.7%
	인건비	163,256,330	76.2%
	업무추진비	5,898,786	2.8%
	운영비	45,004,877	21.0%
국내사업	소 계	1,061,671,225	28.2%
	장애인복지사업	839,781,675	79.1%
	배분기획사업	75,558,330	7.1%
	노인복지사업	80,000,000	7.5%
	지역복지사업	33,121,220	3.1%
	아동복지사업	14,910,000	1.4%
	기타사업	18,300,000	1.8%
해외사업	소 계	608,981,211	16.1%
	아동결연사업	256,734,361	42.2%
	아동지원사업	150,312,182	24.7%
	장애인지원사업	65,958,107	10.8%
	보건의료사업	14,124,168	2.3%
	분야별특별사업	48,084,717	7.9%
	긴급구호사업	45,810,913	7.5%
	해외사업국 운영지원	8,011,243	1.3%
	국제협력사업	19,945,520	3.3%
자원 개발사업	소 계	284,426,973	7.5%
	미디어개발사업	89,420,918	31.4%
	온라인사업	48,526,110	17.1%
	교회사업	4,816,424	1.7%
	회원서비스사업	72,982,181	25.7%
	CSR협력사업	68,681,340	24.1%
홍보사업	소 계	44,665,900	1.2%
	오프라인홍보	42,838,990	95.9%
	온라인홍보	1,374,000	3.1%
	휴먼홍보	375,910	0.8%
	CPS홍보	77,000	0.2%
경영기획 사업	소 계	43,457,350	1.2%
	교육연구사업	4,696,930	10.8%
	전산개발	20,354,500	46.8%
	기획사업	1,218,920	2.8%
	조직강화사업	17,187,000	39.6%
재산조성비		224,184,210	5.9%
상환금 외		231,758,787	6.1%
차월사업준비금		1,058,132,006	28.1%



ONLY ONE COSTCO

코스트코 양평점, 양재점, 상봉점, 광명점, 일산점, 대전점, 대구점, 부산점, 울산점

㈜올레 인터내셔널 대표전화 031-925-3886 www.tashia.co.kr

(주) 올레인터네셔널은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입니다.

[국내사업장]

| 법인사무국 | 02-3411-4664
경남지부 1600-0966
전남지부 1600-0966
전북지부 1600-0966
부산지부 051-853-4665

| 장애인복지사업 |

강남구직업재활센터 02-2184-8700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02-6913-9100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 02-6910-9191
밀알그린보호작업장 02-3411-8300
밀알그룹홈 동행의 집 055-753-1456
밀알그룹홈 나눔의 집 02-3401-1084
밀알그룹홈 섬김의 집 02-449-3478
밀알단기보호센터 02-3414-0314
밀알주간보호센터 02-3414-0314
밀알베이커리 02-2184-8702
밀알보호작업장 02-2184-8740
밀알연구소 02-3411-4665
밀알학교 02-3412-1133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031-777-9041
안산밀알보호작업장 031-402-2484
안산밀알센터 031-401-0902
안산시장애인복지관 031-403-0078
안산아름드리그룹홈 031-414-3171
옥수그룹홈 031-705-3398
온유한센터 031-418-9863
우리플러스작업장 02-2184-8750
한우리주간보호센터 02-2184-8761
해마을주간보호센터 02-3412-2222

| 노인복지사업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02-993-9900
도봉데이케어센터 02-990-6670
도봉시니어클럽 02-3492-3009
도봉실버센터 02-955-6080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02-955-6080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02-3494-6060
목련데이케어센터 02-3412-2226
서울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02-955-609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02-3474-6080

| 지역복지사업 |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02-3412-2222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414-3346
대청종합사회복지관 02-459-6332
쌍봉종합사회복지관 061-681-7179

| 아동보육사업 |

면일어린이집 02-495-4604
목련어린이집 02-3412-1999
부암어린이집 02-396-6226
중림어린이집 02-364-7534
청마을어린이집 02-459-6335

| 문화, 일자리 사업 |

밀알아트센터 02-3411-4661
사회적기업 청밀 02-459-8860

[해외사업장]

기니비사우 +245-574-6516
남아프리카공화국 +27-79-527-9117
네팔 +977-1-431-5485
라이베리아 +231-886-668097
마다가스카르 +261-2022-44496
말라위 +265-992-129-931
방글라데시 +880-171-510-7842
시에라리온 +232-76-606074
아이티 +1-917-648-1199
에티오피아 +251-911-760-422
우간다 +256-776-771-324
우크라이나 +38-0974-338-961
이스라엘 +972-52-547-1422
중국 +86-133-448-7401
케냐 +254-732-625-987
탄자니아 +255-754-344-495
코트디부아르 +225-0705-8783
태국 +66-86-191-6122
필리핀 +63-922-739-7017

후원전용계좌

■ 하나은행
810-213140-01605
■ 예 금 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회원전용번호
1600-0966

www.miral.org
밀알복지재단